

수행하자!

생활인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경전공부와 수행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직장이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마음을 낸다면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불교 경전 공부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많은 신행단체나 사찰에

서 다양하고도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수행의 길을 안내해주는 불교가 반가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어 한 자리에 모아봤다.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 등에서는 기초교리와 수행방법을, 금강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다. 제파나와선원 등에서는 위빠사나 수행을, 법왕정사에서는 염불삼매 체험을 마련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각 사찰 및 수행단체 프로그램

장 소	프로그램	일 정	전화번호
서울 상도선원	마음수행 교학과 불교입문 강의	3.5-5.31	02-815-3391
부산 법왕정사	염불삼매 체험 집중수련회	3.6-3.8	051-583-7886
서울 금강선원	기초참선수행	3.2-6.1	02-445-8484
서울 동국대 사회교육원	제비명상과정	3.10-5.26	02-2260-3730
안성 활인선원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	3.13-3.15	031-671-7707
함양 벽송선원	재가불자 불교수련회	3.15-3.22	055-962-5661
계룡 무상사	무상사 참선반	3.2-6.29	042-841-6084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4.6-5.5	033-339-6777
서울 보리수선원	이비담마특강	4.24-5.9	02-517-2841
연기 위빠사나 붓다선원	오온관찰법과 표적관찰법	2.26-6.29	041-888-3119
서울 제파나와선원	청정도론 특강법회	3.17-6.9	02-696-5115
천안 호두마을	주말 집중 위빠사나 수행	매주 금-일	041-567-2841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원시불교 경전 읽기 모임	4.8-7.29	02-3411-8103
서울 불교인재개발원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나눔찾는선	3.23-5.26	02-735-2428
서울한국불교사문학회기관	무비스님 (입제특)대강좌	4.1-8.19	02-735-2428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명상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3.6-5.22	02-2236-5306

4년간 사찰전문털이 40대 구속

사찰만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월 18일 사찰 법당과 요사채가 빈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 모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4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사찰에서 47차례 걸쳐 총 3900만원 상당을 훔친 범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빈방 털이와 더불어 긴 꼬챙이에 양면 테이프 등을 감아 붙인 현금을 빼내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스님들은 잘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 사찰을 택했다"며 "반 년정도 사찰생활 당시 새벽예불 때 방이 거의 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스님들은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증가 등 일선 사찰에서 성보 및 보시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덕현 기자

“이사장 지옥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서불대 비대위, 기자회견 열고 이사장 사퇴 촉구

“서불대를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옥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학생·교수·교직원 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장 지옥 스님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서불대 사태가 확산 일로에 처했다.

서불대 비대위는 2월 17일 우리 함께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병은 교수(대학평의회 의장), 조옥경 교수(교수협회의 회장)와 황성욱 학생회회장, 황해연 직원협의회회장 등 내부 구성원별 기구대표를 비롯해 서불대 이사회(이사장 지옥)에 의해 해임된 박성현·성승연 교수와 김준

범 전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대위는 ‘서불대를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옥 스님은 사퇴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는 “이사장 지옥 스님은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총장에 대한 3번의 직위해제와 2번의 해임, 석박사 35명의 제적,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직 박탈, 4명의 직원해임과 1명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교수 2명의 재계약불가 통보를 비롯해 제적생 학교출입 금지와 총장실 폐쇄를 위한 용역배치 등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옥 스님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당신 발 앞에

무릎꿇고 참회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구성원은 누구든 여지없는 인사징계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파행행정을 넘어 서불대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옥 스님은 속히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서불대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박성현, 성승연 교수의 부당해임 철회 △직원들의 부당해임 및 직위해제 철회 △인사비리 관련자 사퇴 △황윤식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중지 △지옥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을 촉구했다.

(상세기사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하나원 법당

2월 28일 첫 이전법회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안성 하나원에서 2월 28일 오후 2시30분 법당 이전 및 관세보살상 집안법회를 봉행한다.

새터민들의 입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하나원은 2007년 10월부터 128억 5천만원을 투입, 본소 내에 교육관과 생활관, 직원 숙소 1동을 새로 건립하고 운동장과 주차장을 넓히며 작년 12월 18일 준공을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관은 법당, 강의실, 컴퓨터실, 놀이방,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속속인 생활관은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또 이번 증축으로 교육생 동시 수용규모가 300명에서 600명, 연간 1800명에서 36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법당에는 불단을 조성한 뒤 관세음보살상도 새롭게 모셨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과 안성사암연합회(회장 각원), 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회가 법회에 참석해 법당 개원을 축하하고 새터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오전 10시 안성 청통사에서는 하나원생을 초청해 조상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상연 기자

“진흥원 주도로 btn과 BBS 통합해야”

선상신 상임이사, 불교와사회포럼서 주장



2월 19일 대한불교진흥원이 개최한 불교와사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불교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 미디어의 미래를 위해 btn(불교TV)과 BBS(불교방송)는 조속히 통합돼야 한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2월 19일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미디어의 역할’ 주제로 개최한 불교와 사회 포럼에서 btn과 BBS 통합이 주장돼 귀추가 주목된다.

행사에는 사회를 맡은 김규철 상임이사(대한불교진흥원)를 비롯해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김재영 지도법사(종보리회), 박광서 원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반영규 선생(불교음악가), 선상신 상임이사(한국인문재단), 이용부 전 문화부 종무관, 홍사성 전 불교방송 상무가 참여했다.

BBS 보도국장을 역임한 선상신 상임이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기관의 통합은 필수”라며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둘 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 이사는 “자원, 인력 등을 집중시켜 컨트롤투에 고민할 때”라며 “현실적으로 종단을 대신해 진흥원이 나서야 한다. 1000~2000억 규모의 불교계 미디어 펀드를 조성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동우 방송인 기독교방송은 명칭에서 ‘기독교’를 빼고 ‘CBS’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합미디어기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제7회 법계장학금 전달식

청도 운문사서 6명에 1800만원



명성 스님(오른쪽)이 2월 18일 청도 운문사에서 6명의 스님에게 18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명성 스님이 혜총 스님(왼쪽)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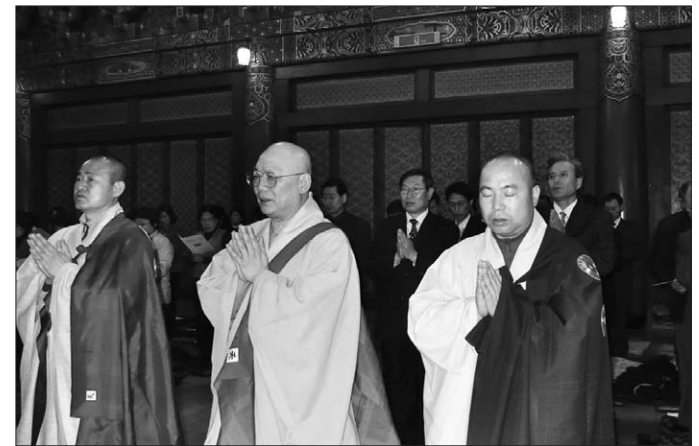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이 올해로 7회째 법계장학금을 전달했다. 2월 18일 청도 운문사에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현정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과), 혜총 스님(경주 동국대 한국음악작곡과), 찬영 스님(동국대 선편과), 진량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지은 스님(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명법 스님(서울대대학원 미학과) 6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1800만원을 전달했다. 법계장학회 는 명성 스님이 마련한 장학금과 후원금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성격 이 우수한 사부대중을 후원하는 장학 제도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전국최고의 불자로 거듭나라~!”

서울시 공불련 창립 1주년 기념 및 신년법회



창립 1주년을 맞은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월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뒷줄 오른쪽부터 하복동, 이동우 회장.

서울특별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이동우)는 2월 16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문사 주지 영재 스님, 서초구 사암연합회장 법안 스님,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안홍부 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이동우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서초·금천·강남·성북·송파·관악·용산·은평·구로

구경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재 스님은 “불법과 어려운 인연을 맺은 만큼 항상 기도할 하면서 선량하게 잘 살면 곧 부처님이 될 것”이라며 “불자 공무원의 한량 없는 자비와 배움으로 시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회장은 축사에서 “지역단위, 전 공무원 불자회 모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에서는 2009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 사교과 00명 / 사집과 00명 / 치문과 00명
- 모집기간 : 2월 10일 ~ 3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1부
- 승려증(행차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1부
- 사진(만의복장, 2×3규격)4매

- 준비물 :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 서류심사 /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승가대학 061)392 - 7324
중 무 소 061)392 - 7502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



고불총림 울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고불율원의 울맥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의 만암, 서용 스님을 걸쳐 30여년이 넘도록 백양사에 주석하시던 울주 동성혜권스님께 이르렀습니다.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자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울맥을 계승할 울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인원 : 0 명
- 모집기간 : 2월 10일 ~ 3월 25일까지
- 교 과 목 : 사본율, 비니관요, 범망경 의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2×3규격) 4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중 무 소 : 061)392-7502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

